

5. 중국혁명, 대륙에 펼쳐진 거대한 드라마

강사: 박세길_새사연 이사 | newroad2015@naver.com

여러 모로 한국 사회의 틀과 기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 이후 과거의 전통과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형태의 혁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세계혁명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줄 것이다.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다. 중국 상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우리 미래가 상당 정도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만 잘 하면 미래를 펼쳐낼 역동적 무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중국을 잘 알아야 한다. 중국은 유사한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델의 나라이다. 선부른 잣대로 접근했다가는 패착을 범하기 십상이다. 중국을 이해하자면 반드시 현대 중국을 태동시킨 중국혁명과 개혁개방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살펴 보도록 하고 먼저 중국혁명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다

나폴레옹은 워털루전쟁에서 패한 뒤 대서양에 외로이 떠 있는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다. 그곳에서 나폴레옹이 한 일이라곤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것이었다. 엄청난 양의 독서를 통해 나폴레옹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눈을 뜰 수 있었다. 나폴레옹이 새롭게 이해한 중국은 변방에 위치한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 오랫동안 인류 문명의 중심부를 차지했던 영광스런 나라였다. 나폴레옹은 근대 이후 정체된 중국은 잠시 잠든 사자라고 보았다. 그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세상을 호령할 것이 분명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면서도 발전된 통일국가였다. 폴 케네디는 자신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에서 “근대 이전의 문명 가운데 중국 문명만큼 앞서고 자부에 찬 문명은 일찍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폴 케네디도 지적한 바 있지

만 중국의 장기간에 걸친 번영을 뒷받침했던 것은 과학기술 발전이었다. 인류 문명 발전에 커다란 획을 그었던 중요한 발명이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발명품이 유럽에 전달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었다.

과학기술 발달은 통신과 운송 수단, 도로 등의 발달을 촉진시켰고 그 결과 진나라 이후 중앙집권적인 관료 제도가 중국 전역을 지배할 수 있었다. 문제는 봉건 지배층이 토지에 일차적인 이해를 두고 있는 조건에서 관료제도 발전은 상공업 발전의 강력한 질곡으로 작용하였다는 데 있었다. 봉건 지배층은 지나친 상공업 발전은 농민을 토지로부터 이탈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18세기부터 정체되기 시작했으며 1800년을 기점으로 문명의 중심축은 유럽 세계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후 유럽과 중국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혹은 반(半)식민지라는 상반된 운명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유럽 열강의 간섭과 침탈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가 멸망했다. 각성의 실질적 지배자로 군림하게 된 군벌들은 봉건 지주와 결탁해 민중을 극렬하게 수탈하였다. 왕조 말기마다 최고조에 달했던 전형적인 이중 수탈이 20세기 초반에 그 마지막 발악을 다하는 듯한 양상이었다.

유럽 열강 침탈과 봉건 지배 세력의 야수वाद도 같은 수탈은 중국 민중의 가슴에 분노의 불길을 지폈다. 잠자는 사자 중국은 바로 그러한 민중의 분노에 자극받아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중국공산당의 약진

1921년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비록 출발은 미약했으나 중국공산당은 노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빠르게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러던 중 1922년 쑨원(孫文)으로부터 국공합작 제의가 들어왔다. 군벌과 손을 잡고 이권 쟁탈에만 열을 올리는 자본주의 열강에 환멸을 느낀 쑨원이 “소련의 조직 기술과 훈련 방법을 배우는 것만이 혁명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소련 원조를 받아들이면서 중국공산당과의 합작을 제의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쑨원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1차 국공합작이 성사된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독자적인 당 대열을 유지한 상태에서 쑨원이 이끄는 국민당과 국민당 정부에 함께 참여하였다. 덕분에 중국 공산당은 적어도 국민당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서만큼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합법적 활동을 통해 비약적으로 힘을 키워 나갔다. 대륙을 뒤흔들 거인이 탄생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노동운동 발전에 힘입어 1927년 초 5만 8000명의 당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24년 당원 수가 불과 500명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놀랄 만한 성장이었다. 공산당 세력의 급격한 성장은 쑨원 사후 국민당을 이끌고 있던 장제스(蔣介石) 일파를 긴장시켰다. 결국 장제스는 1927년 4월 12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난징과 상하이 일대에서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고 공산당원은 모두 국민당에서 축출되었다. 대학살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산당은 당원의 5분의 4를 잃어야 했다. 4·12쿠데타와 함께 장제스의 국

민당은 지주와 대자본가 계급의 편에 서면서 제국주의 열강과 손을 잡았다. 군벌 토벌에 나섰던 국민당은 가장 강력한 군벌로 변질했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소련의 지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전략 노선도 러시아혁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공산당은 국민당 공격에 맞서 도시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무장봉기를 단행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무장봉기는 참담한 패배로 끝났다. 도시는 국민당 아성이었던데 반해 노동자 역량은 매우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이 와중에서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이단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이름은 마오쩌둥이었다. 마오쩌둥은 일련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인구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농민이 중국혁명의 주력이 될 수 있음을 간파했다. 마오쩌둥은 농민 조직화에 모든 힘을 쏟았다. 마오쩌둥은 농민들과 함께 추수봉기를 단행했으나 국민당의 강력한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마오쩌둥은 탄압을 피해 1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정강산으로 들어갔다. 자연스럽게 정강산을 근거지로 게릴라전 형태의 무장투쟁이 시작되었다.

근거지가 마련되자 각지에서 지원병이 찾아들면서 무장세력 규모가 나날이 커졌다. 마오쩌둥은 무장세력 힘을 이용해 인근 후난성 변방 지역을 해방구로 만든 뒤 소비에트를 건설했다. 소비에트 안에서는 농민의 오랜 염원인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고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등 혁명적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실험은 민중의 혁명적 열기를 고취시키면서 소비에트가 장시성 일원으로 확산되도록 자극했다.

마오쩌둥 행보는 당내 갈등을 유발시켰다. 농민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무장투쟁과 해방구 전략은 소련 모델을 추종하던 당 지도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결국 공산당 지도부는 마오쩌둥을 당 정치국에서 해임하고 모든 관계를 끊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당 지도권은 마오쩌둥으로 넘어갔다.

신화를 창조한 대장정

소비에트가 확장되고 공산당 무장 병력인 홍군이 급성장하자 위기감을 느낀 장제스는 1933년 10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90만 대군을 동원해 전례 없는 공산당 토벌 작전을 감행했다. 장제스 군대는 (흔히 ‘백군’이라 불림) 도로와 토치카를 건설하면서 느리게 진군하였고, 홍군 근거지인 농촌을 사정없이 불태우고 농민을 학살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려 100여만 명의 농민이 목숨을 잃었다.

28인의 불세비키가 장악하고 있던 공산당 지도부는 게릴라전으로 맞서는 것을 포기하고 진지전으로 정면 대응했다. 결과는 홍군의 참패였다. 홍군은 6만 명의 병력을 상실했다. 소비에트를 지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다급한 상황에서 공산당은 근거지를 대륙 정반대 쪽인 서북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대장정을 결정했다.

약 1년간에 걸친 대장정 기간 홍군은 겹겹이 에워싼 국민당군의 봉쇄와 지방 군벌들을 헤쳐 나가면서 하루 한 번꼴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으며 그 중 15일은 밤낮을 꼬박 전투로 보내야 했다. 이들은 평균 130km 행군한 후 한 번 휴식을 취하면서 중국 대륙을 남쪽으로 반 바퀴 돌면서 약 1만 2천km를 걸었다. 미국 대륙을 두 번 횡단하는 거리였다. 홍군은 대장정 기간 동안 열일곱 개의 강을 건넜고 열여덟 개의 산맥을 넘었는데 그중 다

셋 개의 산맥은 만년설로 뒤덮인 대산맥이었다. 그들은 열두 개 성(省)을 지나면서 예순두 개 도시를 점령했으며 장제스 군대 포위를 열 번이나 돌파했다. 그들은 백군뿐만 아니라 추위, 굶주림, 더위, 산과 강, 늪지, 독충, 질병, 갈증 등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싸워야 했다. 때로는 열흘 이상 풀뿌리와 날 음식만을 먹었고, 때로는 맨발로 만년설이 뒤덮인 대 산맥을 넘어야 했다. 그리고 장대비 속에서 서로 껴안고 잠을 잤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며칠씩 사막을 행군하기도 했다.

강서를 떠날 때 약 8만 6천 명이었던 홍군 주력부대는 쓰촨(四川)에 도착했을 때 약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중간에 충원된 병력을 감안하면 무려 5분의 4가 죽거나 낙오한 것이었다. 그 중에 여성은 35명만이 살아남았다. 쓰촨에서 목적지인 산시성(陝西省)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또다시 절반이 죽었다. 최종적으로 산시성에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자는 8천 명 뿐이었다. 결국 대장정의 전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열사람 중 한 명꼴로써 '살아남는 것 자체가 승리'인 투쟁이었다.

홍군은 대장정 기간 동안 약 2억 명을 만났으며 그들 속에 혁명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뿌렸다. 홍군은 마을을 점령할 때마다 대중 집회를 열고 연극을 공연하며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킴과 동시에 '민족반역자' 재산을 몰수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날 때는 간부들을 남겨 유격대를 조직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 결과 홍군은 군사적으로는 장제스 군대에 쫓기는 듯하면서도 움직이는 거리만큼이나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후퇴하면서도 승리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산시성에 도착한 홍군은 옌안(延安)을 중심으로 안정된 근거지를 구축하였다. 곧이어 인접해 있는 산시, 간수(甘肅), 산시성(山西省)등에서는 광범위한 소비에트가 건설되었다. 대륙을 사이에 두고 장제스의 근거지와 정반대되는 위치에 드넓은 해방구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불패의 홍군' 신화가 창조되었다.

대장정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마오쩌둥이었다. 대장정은 당 지도권이 마오쩌둥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는 곧 중국 공산당이 마오쩌둥 노선을 전면 수용한 것을 의미했다.

전세를 뒤바꾼 항일전

중국공산당이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한 뒤 도약을 꿈꾸고 있을 무렵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1937년 피에 굶주려 있던 일제가 중국 대륙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한 것이다.

공산당은 항일 대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국민당과의 합작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공산당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양보했다. 토지개혁 등 국민당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유보하거나 대폭 완화시켰다. 비록 형식적 조치이기는 했지만 홍군 스스로 국민당 산하 8로군을 자처하기도 했다. 공산당의 과감한 조치로 공산당과 국민당이 항일전을 위해 손잡는 '2차 국공합작'이 성사되었다.

현대식 장비로 무장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중국 대륙을 유린했다. 일본군은 이르는 곳마다 방화와 학살, 강간, 약탈을 자행하였다. 난징에서는 무려 30만 명을 학살하는 만행

을 저질렀다. 그러나 일본군은 중국 전역을 점령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 중국은 총력 수만도 100만 일본군 수보다 두 배나 많은 200만 개에 이를 정도로 광대하기 짝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군은 철로와 도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해안을 따라 발달한 대도시를 점령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대도시를 기반으로 삼고 있던 국민당 행정 조직은 남김없이 무너졌고 국민당 군대 기반 역시 급속히 약화되었다.

이 와중에서 국민당 군대는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보다 공산당을 견제하는 데 보다 많은 신경을 썼다. 이런 모습은 민중들로 하여금 국민당에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국민당 간부들의 부패는 전쟁 와중에서 아랑곳없이 극에 이르고 있었다. 결국 국민당에 대한 모멸감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말았다.

홍군은 마오쩌둥의 지구전 원리에 따라 일본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광활한 농촌을 무대로 게릴라전을 전개함으로써 역량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일본군에 대해 효과적인 공격을 가했다. 불패 신화가 거듭해서 창조되자 일본군과 국민당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다투어서 홍군에 입대하였다. 낙오한 장제스의 군대 역시 애국심에 이끌려 홍군에 합류하였다. 공산당과 홍군은 항일 전쟁이 지속되면서 급속하게 세력이 커졌다. 1945년 항일전이 승리로 끝났을 무렵 공산당원은 120만 명으로 늘어났고 홍군은 90만 대군으로 성장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군 배후에서는 홍군을 지원하는 700만 민병대가 조직되었고 각종 항일 단체에 1200만 명의 민중이 조직되어 있었다. 항일전이 승리로 끝났을 무렵 공산당은 정치적 힘에서 국민당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항일전 시기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유지했던 국민당과 공산당은 전면적인 내전에 돌입하였다. 국민당 군대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 덕분에 수나 장비 면에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홍군을 이길 수 없었다. 1948년 만주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자 국민당 군대는 급속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국민당 군대는 다투어서 항복하였고 견디다 못한 장제스는 소수 병력을 이끌고 타이완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1949년 3월 홍군은 베이징에 입성했다. 내전이 평정된 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되었다. 공산당이 국민당을 물리치고 최종 승자가 된 것이다. 1927년 정강산에서 게릴라전을 시작한 지 22년만의 일이었다. 공산당 승리와 함께 민중은 자유와 토지를 얻었다.

교조주의와의 결별

중국혁명은 소련식 모델에 대한 맹목적 추종에서 벗어나 중국 토양에 맞는 독자적인 모델을 창조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결코 아니었다. 도리어 독자적 모델 창조는 이단으로 간주되었고 주역인 마오쩌둥은 한 때 당 중앙에서 철저히 배격당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마오쩌둥은 덮어놓고 소련식 모델을 추종하는 교조주의자들에 대해 극단적인 반감을 갖게 되었다. 교조주의에 대한 마오쩌둥의 반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말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종교적 교의로 여기는 사람들은 맹목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너의 교의는 똥만도 못하다”고 점잖지 못한 말을 써야한다. 개똥은 들판에 거름으로 쓰일 수 있고 사람의 똥은 개가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교의라고 하는 것은 들판을 비옥하게 할 수도 없고, 개에게 먹일 수도 없다.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중국혁명이 소련식 모델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자 소련 지도부는 중국혁명에 대해 상당한 경계 시선을 갖게 되었다. 당시 소련은 자신들만이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 유일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중국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소련의 태도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후 두 나라 관계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